

□ 日本의 21世紀 IT化 戰略¹⁾

- 일본은 21세기 지혜의 시대에 어울리는 미래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‘밀레니엄 프로젝트’, ‘일본 新生을 위한 新發展政策’ 등 IT화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
- ‘밀레니엄 PJ’에서는 ‘2005년까지 누구라도 自由自在로 정보에 접근’이라는 슬로건과 ‘정보통신기술 21세기 계획’, ‘교육 정보화’, ‘전자정부 실현’이라는 목표를 제시함
- ‘新發展政策’에서는 인터넷을 어디서나(하드웨어), 누구라도(소프트웨어), 편리하고 즐겁게(컨텐츠)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IT 혁명 추진 전략으로 내세움

1. 미래 사회를 지향하는 일본의 IT화 전략

○ 일본의 IT화 정책 추이

- **1999년 이후 IT화를 경제 정책의 초점으로 삼음**
 - 일본 정부는 1994년 이후 IT화를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나, 본격적으로 IT화를 주요 정책으로 삼은 것은 1999년경임
 - 1999년 ‘밀레니엄 프로젝트’를 통해 21세기 IT화 정책 목표가 분명해졌으며, 2000년 ‘일본 新生을 위한 신발전정책’을 통해 그 실천 방안이 구체화됨
 - 2000년 말까지 ‘E-JAPAN 構想’을 수립하여 IT 전략을 완결지을 것으로 보임

<표> 일본의 IT화 정책 추이

시기	조 치	내 용
1994. 8	‘高度情報通信社會 推進本部’ 설치	· IT를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인식하고,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고 각료 전원이 참여
1999. 4	情報化社會 실현 4大 當面 目標 확정	· 전자상거래 본격 도입, 공공분야 정보화, 정보문맹 퇴치, 고도정보통신 인프라 확충
1999. 7	‘經濟新生對策’	· IT화를 통한 경제 부양대책 마련
1999.12	‘밀레니엄 프로젝트’	· ‘IT 21(정보통신기술 21세기계획)’의 추진
2000.10	‘日本新生을 위한 新發展政策’	· IT화를 통해 당면한 경기 회복 추진과 미래형 사회에의 대응

1) 이 글은 일본 經濟企劃廳이 발표한 「ミレニアム・プロジェクト(新しい千年紀プロジェクト)」(1999년 11월 19일)과 「日本新生のための新發展政策」(2000년 10월 19일)를 요약, 정리한 것임

○ ‘밀레니엄 프로젝트’

– 개요

- 새로운 밀레니엄을 목전에 두고, 인류가 직면하는 과제에 대응하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기술혁신을 이루기 위해 1999년 12월 시작한 프로젝트임
- 정보화, 고령화, 환경을 주요 정책 분야로 설정하고, 民·官·研 공동으로 프로젝트 수행

– ‘情報化’ 추진 전략

- ‘누구라도 自由自在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’이라는 슬로건 내걸
- ‘IT 21(정보통신기술 21세기 계획)의 추진’, ‘교육의 정보화’, ‘전자정부의 실현’이라는 세 가지 목표 제시

① ‘IT 21’의 추진

- 2005년까지 모든 국민이, 어디에서든지, 초고속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활용하여, 자기가 원하는 정보의 획득·처리·전달을 안전·신속·간단히 할 수 있는 인터넷과 컴퓨팅 환경을 구축함

② ‘교육의 정보화’

- 2001년까지 모든 공립 초·중·고교에서 인터넷에 접속 가능하고, 모든 공립학교 교원이 컴퓨터 활용 능력을 익히게 함
- 2005년까지 모든 초·중·고교에서 인터넷에 접속 가능하고, 모든 수업에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

③ ‘전자정부의 실현’

- 2003년까지 민간과 정부간의 행정 수속을 인터넷을 활용함으로써 ‘paper-less’ 전자정부의 기반을 구축함

○ ‘日本 新生(재생)을 위한 新發展政策’

- 정책 목표

- 일본 정부는 재작년 ‘緊急經濟對策’을, 작년 ‘經濟新生對策’을 수립함. 금년 10월에는 향후 경제 대책으로 ‘日本新生을 위한 新發展政策’을 수립함
- 정책 목표로는 첫째, 景氣의 자율적 회복 궤도 확립
- 둘째, 다양한 지혜의 시대에 어울리는 미래형 사회로의 출발임

- 정책 수립 배경

- 일본 경제는 기업 부문 호조로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으나, 고용 및 소비의 회복이 미진하여 민간 수요를 중심으로 한 자율적 회복에는 이르지 못함
- 따라서 일본 정부는 경기가 자율적 회복 궤도를 타 향후 미래를 향한 발전 기반을 굳건히 다질 필요를 느낌
- 일본 정부는 인류 문명이 規格大量生産型 공업사회로부터 다양한 정보와 개성이 넘치는 지혜의 사회로 대변혁을 맞고 있다고 인식하면서,
- 일본이 21세기에도 계속 세계 경제의 주요한 플레이어로 존재하려면 이러한 대변혁을 솔선하여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

- 주요 정책 분야

- 2.3조엔을 들여 다음의 사업을 집중 추진(신발전정책 총 사업비는 약 11조엔)
 - ① IT 혁명의 비약적 추진(투입 사업비 : 8천억엔)
 - ② 순환형 사회의 구축 등 환경 문제의 대응(6천억엔)
 - ③ 활력으로 충만한 미래 사회를 지향한 고령화 대책(5천억엔)
 - ④ 편리하고 살기 좋은 도시의 기반 정비(9천억엔)

- ‘IT 혁명의 비약적 추진’ 전략

① E-JAPAN 構想(IT 國家戰略)의 추진

- IT 혁명의 비약적 추진은 21세기 풍요로운 국민생활과 경쟁력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관건이며, 일본 신생의 가장 중요한 지주임
- IT 관련 전략을 세우고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「高度情報通信ネットワーク(네트워크) 社會形成基本法」을 입법할 계획임
- 연내에 IT國家戰略(E-JAPAN構想)을 수립하려 함

- IT 혁명 추진을 위한 기본 전략으로서 하드웨어인 시설, 소프트웨어인 기능, 내용물인 콘텐츠의 세 축을 동시 병행하여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려 함

② IT 혁명 추진을 위한 기본 전략

i) 하드웨어(시설) : 어디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

- 지역정보통신네트워크의 구축 : 행정청사, 학교, 역, 상점 등 시설을 초고속네트워크로 결합한 지역 인트라넷 기반 형성
- 사회교육시설의 단말 정비 : 마을 회관, 도서관 등 전국 각지에 십여만대의 네트워크 단말기를 설치하는 등 公衆 인터넷 거점의 마련
- 광통신망 구축 : 1000개校 이상에 광섬유 등 고속 회선 설치로 인터넷 접속 가능케

ii) 소프트웨어(기능) : 누구라도 쓸 수 있게

- IT 보급 국민운동을 전개하여 2001년까지 5천만명(인구의 4할)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
- 지방 공공단체가 마을 회관, 학교, 도서관, 지방 공공단체 청사, 기타 민간 시설을 이용하여 IT 기초기능 강습을 550만명을 대상으로 수행
- IT 관련 직업 훈련, 중소기업·농업종사자의 IT 교육, 소비자의 IT 강습 등을 통해 약 150만명에 대해 IT 기능 습득 기회 제공

iii) 콘텐츠(내용물) : 편리하고 즐겁게

- 전자 정부의 조기 달성 : 2003년까지 행정 수속의 온라인화 실현
- 전자상거래 확대 : 전자 문서 계약의 인정 등 전자 상거래 관련 법률의 제정
- 국민생활, 산업활동의 IT 이용도 제고 : IC 카드, 지리정보시스템, 직업 소개, 진료기록카드의 전자화 등 추진
- 인터넷 박람회 추진 : 금년 12월 31일부터 1년간 인터넷 박람회 개최

2. 한국의 IT화 추진 전략

○ 한국의 IT화 추진 정책 추이

- 한국의 IT화 정책은 'CYBER KOREA 21' 계획으로 집약됨
 - 한국의 IT화 정책은 90년대 중반까지는 국가기간전산망의 구축에 주력함
 - 1995년 이후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과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노력 기울임
 - 1999년에는 창조적 지식기반국가의 건설이라는 목표하에 그간의 IT화 추진 정책이 'CYBER KOREA 21'로 계승 발전됨
 - 정보통신부를 축으로 쉰 부처가 참여하여, 2002년까지 28조 7천억원(민간 19조원)의 재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 중

<표> 한국의 IT화 정책 추이

시기	조 치	내 용
1987~ 1996	'국가기간전산망사업'	· 국가 운영에 필요한 주요 정보의 DB화와 각 전산시스템의 연계 운영
1995.3	'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 종합추진계획'	· 2015년까지 전국에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→ 97.7 '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 계획'에서 2010년으로 앞당김
1995.7	'정보화촉진기본법'	·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과 정보통신산업의 전략적 육성
1996	'정보화촉진 기본계획'	· 범국가적 정보화 촉진을 위한 마스터플랜
1999. 3	'CYBER KOREA 21'	·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을 지향. 2002년까지의 정보화 정책의 방향과 과제 설정

○ 'CYBER KOREA 21'

- 정책 수립 배경
 - 세계 문명의 '지식주도경제(Knowledge Driven Economy)'로의 대전환 진행
 - 과거 정보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한국 지식·정보화 수준이 선진국에 크게 뒤짐
 - IMF 관리체제 이후 국가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
- 비전 및 목표
 - 비전 : '창조적 지식기반국가의 건설'
 - 목표

- ① 2002년까지 지식기반산업의 GDP 비중을 OECD 수준(98년 34%)으로 향상
- ② 2002년 세계 10위권의 지식·정보화 선진국으로 발전

– 중점 추진 과제

① 지식 정보 인프라의 구축 : ‘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’ 구현

- 2002년까지 언제 어디서나 지금보다 100배 빠른 인터넷(1.5/2Mbps) 구현
- 전국민 정보화 교육을 통해 2001년까지 인터넷 사용자 1,000만명 이상으로

② 정보 인프라를 활용한 정부, 기업, 개인 혁신 : 생산성 향상

- 전자 정부의 구현 : 행정업무의 전자화, 정부기관 인트라넷 구축, 국민 편의 중심의 서비스 제공
- 지식 경영 도입 : 농·수산업, 제조업, 서비스업 등의 지식 기반 산업화
- 전국민의 신지식인화 추진 : 평생 학습 체제와 신지식인 운동의 전개

③ 정보 인프라를 통한 새로운 산업의 육성 : 인터넷에 ‘제2의 국토’ 건설

- 정보산업의 발전 토대 마련 : 전자상거래의 활성화, 정보유통사업(ISP)·정보제공사업(IP)·S/W·컨텐츠 산업의 육성
- 새로운 일자리 창출 : 2002년까지 100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
- 정보통신품목을 수출전략 상품으로 선정하여 기술 개발 집중 지원

– 2002년 한국 사회의 모습

분 야	주 요 변 화
경제	- 지식기반산업의 GDP 비중을 OECD 수준으로 · 정보통신산업 생산액 : 1998년 90조원 → 2002년 136조원 · 정보통신산업 수출액 : 1998년 301억불 → 2002년 471억불
노동	· 전체 노동인구의 10% 이상이 재택근무 또는 원격근무
행정	· 문서 유통의 80% 이상을 전자화, 처리 시간 30% 단축
통신	· 전국 어디서나, 누구든지 저렴한 요금으로 1.5/2Mbps급 이상의 고속정보통신 서비스 이용
정보	· 전국민 1인 1PC 사용 환경 구현
교육·연구	· 모든 국민이 언제, 어디서나 온라인 교육과정 참여 · 연구 정보의 쌍방향 온라인 교환
상거래	· 75% 이상 기업이 전자상거래 이용 ·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1998년 550억원 → 2002년 3조 8천억원
문화	· 전자도서관·전자박물관 증가, 각종 디지털 정보의 검색 용이 · 방송·통신 융합

3. 評價 및 示唆點

- **한국과 일본의 IT화 전략의 기본 방향은 거의 유사함**
 - 추진 배경 : IT화가 문명 변혁의 큰 흐름이며, 국가 경쟁력의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추진함
 - 추진 체계 : 한·일 모두 범정부적 차원에서 IT화를 중점적으로 추진
 - 정책 내용 : 양국 모두 정보 인프라의 구축, 경제 주체의 정보화 능력 제고, 전자상거래 등 정보화 관련 산업의 활성화 등으로 정책 내용이 대동 소이함

- **일본은 IT화를 21세기 미래 사회의 全體 像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임**
 - 일본은 한국에 비해 보다 종합적 청사진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
 - ‘신발전정책’에서 보듯 일본 정부는 미래형 사회를 위해 IT화 뿐 아니라 순환형 사회, 고령화 사회, 도시기반 정비 등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 하고 있음
 - 그리고 IT화를 종합 경기 대책인 ‘經濟新生對策’, ‘新發展政策’의 일환으로 시의에 맞게 추진하고 있어 정책간 협력도 및 집행 강도가 높을 것으로 보임

- **한국은 종합적인 미래상의 제시가 필요함**
 - 한국은 IT화를 ‘IT화’라는 좁은 틀 속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
 - 한국은 일본에 비해 미래 국가경쟁력의 확보 차원에서, 정보통신산업의 발전 및 수출 산업으로의 육성이라는 산업 정책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향 강함
 - 경제, 사회 전반적인 과제 등 종합적인 미래상 속에서 IT화 추진이 필요함
 - 이럴 때 국민들은 보다 뚜렷한 미래상을 정립할 수 있게 되고, IT화への 자발적인 참여도가 높아지게 될 것이며, 부처간 정책 조화에도 기여할 것임

- **상황 변화에 따른 정책의 수정 등도 검토해야 할 것임**
 - ‘CYBER KOREA 21’ 계획의 수립기와 비교할 때 경제 여건은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고, IT화 추진의 주요 축인 벤처기업은 위기론에 시달리고 있음
 - 따라서 여타 경제 정책과의 조화를 고려한 정책의 완급 조절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

(김 용복)